



제목	Shiraz in the Age of Hafez: The Glory of a Medieval Persian Cit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발행일	2004. 6. 1.
저자	J. Limbert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192
ISBN 또는 ISSN	978-0295983912

내용 요약

14세기 페르시아 도시 시라즈에서는 시인들이 시를 읊고, 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했으며, 신비주의자들은 숨겨진 진리를 찾았다. 고행자들은 금욕과 기도애 매진하고, 술고래들은 말다툼을 했으며, 왕자와 왕자를 등에 업은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치명적으로 행사했다. 이것이 시라즈의 시인 하피즈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였다.

시라즈가 하피즈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하피즈는 시라즈에서 태어났고, 하피즈의 무덤 또한 시라즈에 있다. 정치적인 음해로 망명생활을 한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하피즈는 시라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가잘에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다 준다고 해도 자신의 고향인 시라즈와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하피즈가 있어 오늘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시라즈를 찾는데, 이처럼 시라즈는 위대한 문화적·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하피즈를 연구하는 모든 하피즈 애호가들이 하피즈를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다.

하피즈를 완전히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 오늘날 이란인의 의식이 된 하피즈 정신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가 살았던 도시를 알아야한다. 이 책에서 림버트(J. Limbert)는 하피즈의 시에 관한 풍부한 맥락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시간과 매혹적인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는데, 하피즈의 도시 시라즈에 대한 저자의 초상화는 중세 사람들과 중동 지역의 학생들, 도시 연구 전문가, 그리고 세계 문학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